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청년세대의 젠더 격차

박선경 (고려대학교)

- 성평등에 대한 국제지표에서 한국의 순위는 낮는데, 특히, 경제적 참여와 정치적 권한 부분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 청년세대 남녀의 절반 이상이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시기별 차이가 더 크다.
- 정치이념, 북한에 대한 태도, 성장과 분배선호 등 정치적 태도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시기별 차이가 더 크다.
-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부 발견되는데, 안전위협과 기후위기를 청년 여성들이 청년 남성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 현재 삶에서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청년 남성들이 청년 여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 여성들은 사회 기여를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소위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 이슈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성향, 정책선호, 사회문제 인식, 삶의 중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서 서로 얼마나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를 소위 젠더갈등이라고 부를 만큼 강하고 심각한 차이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세대 내 젠더격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3~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누적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본다. 둘째, 청년세대의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나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의 2020~2023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와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정책 및 삶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다룬다. 2016년 이전 소수의 온라인공간에서만 일부 존재했던 젠더갈등은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1월 검찰 미투 사건, 2018년 혜화역 시위 등의 사건을 통해 거리의 정치로 부상했고, 2022년 대선을 기점으로 20대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지정당과 지지후보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면서

국제지표로 본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한국은 성평등한 사회인가? 청년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 답변이 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y Forum)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를 비교해보자.

우선,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는 생식건강, 여성권한과 노동참여의 세 부문에서 성별 불평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의회 내 남녀 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남녀 인구 비율, 그리고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 성평등의 정도를 0(완전 평등)에서부터 1(완전 불평등) 사이로 측정한다. 주로 건강과 출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경제활동 관련 지표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성불평등지수가 만들어진 2010년대 초반에 한국은 20위권 전후를 기록했지만¹⁾ 2015년에 0.067점으로 전체 188위 중 10위를 기록한 이후 유사한 수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0.062점을 기록하여 전체 193개국 16위로 소폭 하락하였다.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순위가 높은 이유는 성불평등지수 값 산출에서 비중이 높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한국의 보건수준을 감안할 때 해당 지표에서의 우수성 때문에 순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성평등 현실에서 더 중요한 지표인 여성권한이나 노동참여 부문은 전 세계 평균에 그친다.

1) 불평등지수가 도입된 2010년 한국의 지수는 0.31로 전세계 중 20위였다가 2011년에 0.111로 11위로 높아졌다가, 2012년은 27위로 하락하고 2013년에 17위였다가 2014년에 다시 23위로 하락한다. 2015년은 10위로, 이후 상위 10% 이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낮다. 올해 6월에 발표된 2024년 국가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146개국 중 94위이다. 성격차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은 92위였고 2017년에는 118위까지 기록한 적이 있다. 성격차지수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의 4개 부문을 다루는데,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절대적인 성취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지표 내에서 남녀 간의 격차만을 비교한다.²⁾ 그래서 성격차지수에서의 한국 순위를 여성 권익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해당 지표 내 남녀 간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지수계산의 차이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성격차지수가 94위라는 점은 놀랍다. 세부 영역별 점수를 보면 2024년에 교육성취도와 건강과 생존 부분 각각 0.980, 0.976으로 완전평등상태인 1에 가깝다. 그러나 경제적 참여와 기회는 0.605점이고 정치적 권한 부여는 0.223점으로, 특히 정치적 권한 부여 점수가 이전 시기보다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낮다.³⁾

셋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고등교육,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격차, 아동돌봄 비용, 모성권리, 기업 이

2) 예를 들어 한국의 2022년 교육성취도 지표는 97위인데, 96위는 미얀마다. 이 순위는 한국의 교육성취도 전체가 미얀마보다 낮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 내 남녀 전체의 교육성취도 내 남성과 여성 간 격차에서 한국이 미얀마보다 약간 더 격차가 크다는 뜻을 의미한다.

3) 단, 정치적 권한 부여 점수의 순위는 72위로, 100위인 교육성취도나 112위인 경제적 참여와 기회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 여성 비율 등 직장 내 성차별을 집중적으로 비교한 지표이다. 한국은 이 지수가 발표된 2013년 이후 계속 OECD 29개 국가 중 최하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 가지 지수는 세부 측정지표에 따라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성건강이나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없으나,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부분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성별 젠더격차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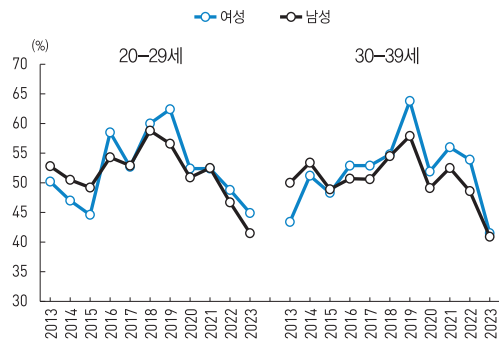
그렇다면 청년세대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 불평등과 젠더갈등의 정도는 어떨까? 본 절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실시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세대 내 젠더 관련 인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또한, 청년세대 내에서도 젠더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20대와 30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청년세대를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으로 총 네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했다. 본문의 모든 그림에서 응답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XI-20]은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한 그림이다. 네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

하지만, 집단별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네 집단 모두에서 남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8년과 2019년에 높았는데, 2018년의 미투운동과 2019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 민감하고 첨예한 사건들에 따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20대 여성의 변화이다. 네 집단 모두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지만, 20대 여성의 비율은 2015년에 44.6%로 최저점이었다가 2016년에 58.5%로 크게 올라서 13.9%p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어떤 집단별 혹은 시기별 차이와 비교해도 가장 큰 폭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20대 남녀 견해 차이의 최대값이 5.8%p(2019년), 30대 남녀 견해 차이의 최대값이 6.6%p(2013년)임을 고려하면, 13.9%p 차이는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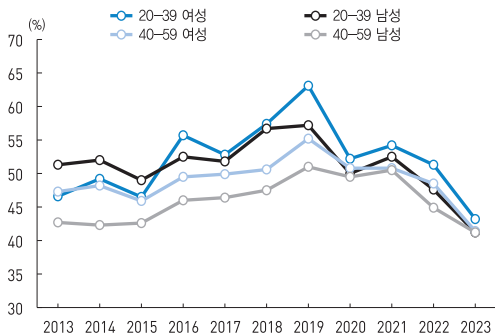
[그림 XI-2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3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심하다' 혹은 '매우 심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0]에서 성별 차이 없이 기간효과만 나타난 것이 청년세대만의 특징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XI-21]에서 청년세대를 중년세대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확인했던 기간효과가 다른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40~50대 남성들이 성별에 따른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덜 느끼고 있지만, 시기별 추세는 모든 집단에서 유사하다. 2013년 이후로 남녀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 의견이 증가하다가 2019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이후 그 추세가 다소 완화된다. 즉, 남녀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시기적 변화는 청년세대만의 특수성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청년과 중년세대 모두 유사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본 글이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인식 격차를 보는 것이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중년세대와의 비교는 생략한다.

[그림 XI-21] 세대별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3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심하다' 혹은 '매우 심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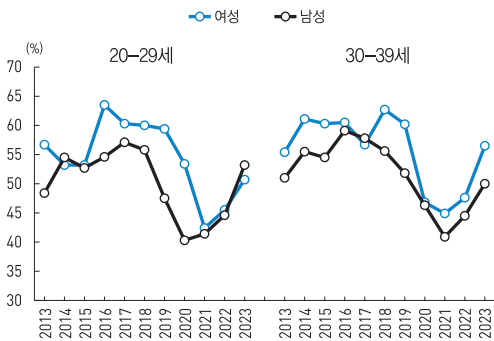
청년세대가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별에 따른 차별 때문일까? [그림 XI-22]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성별에 따른 대우의 불공정성 정도를 보여준다. 집단별로 보면,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와 30대 여성들이고,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적은 집단은 20대 남성이다. 세대 중 20대만 한정해서 보면, 20대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는 2020년으로 20대 여성의 53.4%가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지만, 20대 남성이 그에 동의하는 비율은 40.3%라서 두 집단 간 차이가 13.0%p로 가장 컸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 이슈가 부각되었던 흐름과 같은 결과이다. 30대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시기는 2019년으로, 8.4%p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성별에 따른 불공정인식에 찬성했다.

그러나 [그림 XI-22]의 더 중요한 특징은 네 집단별 차이보다 시기별에 따른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는 네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2019년과 2020년에 20~30대 남성 중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남녀 간 응답비율의 차이가 생기지만, 2021년에는 20~30대 여성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줄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하지만, 특정 집단에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네 집단 모두 유사한 비율로 증가했다.

[그림 XI-22] 청년세대의 성별에 따른 불공정 대우 인식,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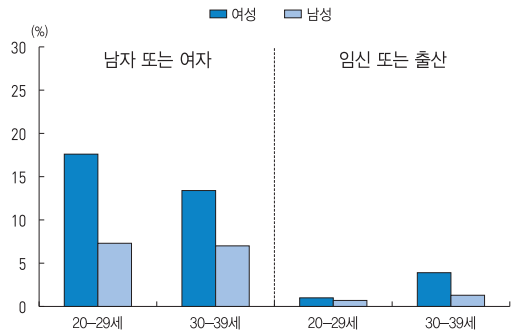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대우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 혹은 '별로 공정하지 않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차별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일까? [그림 XI-23], [그림 XI-24]와 같이 최근 조사에서 적용된 질문인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XI-23]은 성별이나 임신 및 출산이라는 이유로 응답자가 경험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 [그림 XI-24]는 동일한 이유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먼저 [그림 XI-23]의 성별에 의한 불이익 경험 응답에서 네 집단 중 20대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크다. 20대 여성 중 17.6%가 성별에 의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그 수치가 가장 높았지

만, 20대 남성은 그 수치가 7.3%로 낮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은 30대 여성에서 가장 많지만, 3.9%로 절대 수치가 매우 적다.

[그림 XI-23] 청년세대의 성별 및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경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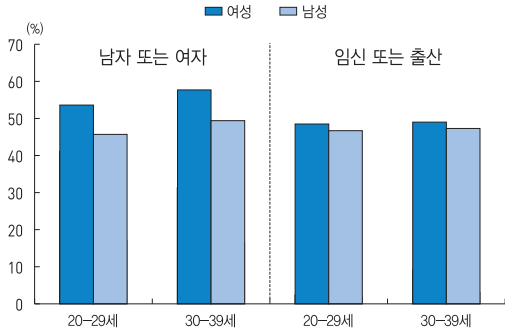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항목과 '임신 또는 출산'이라는 항목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2.

반면, [그림 XI-24]에서 보듯이 개인의 경험이 아닌 사회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면, 3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인 57.7%가 우리 사회에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고, 20대 여성의 53.6%도 이에 동의했다. 남성은 20대의 45.7%, 30대의 49.4%가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성보다는 낮긴 하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성별로 인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년세대의 절반 이상이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며, 젠더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부각되던 시점에서 갈

[그림 XI-24] 청년세대의 성별 및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인식,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항목과 '임신 또는 출산'이라는 항목에서 '약간 있다' 혹은 '매우 있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3

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불공정이나 불이익의 문제도 20대 여성 집단 내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집단 간 차이보다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더 크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로 부상되는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이견과 갈등은 앞서 살펴본 남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별에 따른 불공정 인식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세대의 성별 이념과 정책태도 차이

그렇다면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이질성은 어디에 있을까? 젠더정치에 대한 학술연구는 전

통적 젠더격차와 현대적 젠더격차를 구분한다 (Inglehart and Norris 2000). 전통적 젠더격차란 여성이 주로 보수 이념성향을 가지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반면, 남성이 진보 이념성향을 가지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반대로 현대적 젠더격차란 여성이 진보 이념성향 및 진보 정당 지지를 보여주고, 남성이 보수 이념성향과 보수 정당 지지를 보여주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대략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대략 1990년대 이후 전통적 젠더격차가 사라지고 현대적 젠더격차가 발견되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간 지지 후보 격차가 커서, 청년세대 내에서의 현대적 젠더격차가 생긴 것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념과 정당 지지에서 청년세대는 성별에 따라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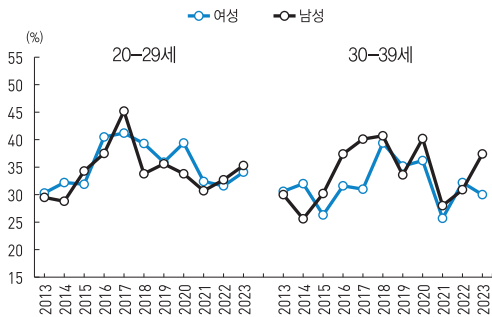
[그림 XI-25]는 스스로 진보라고 응답한 청년세대의 비율을 시기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20대에 지지 후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2022년 전후 시기 청년세대 내 여성과 남성의 이념성향은 큰 차이가 없다. 2022년을 자세히 보면, 20대 여성 중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31.6%이며 20대 남성은 32.7%이다. 30대 여성 중 32.2%, 30대 남성 중 30.9%가 스스로 진보라고 응답해서 20대와의 큰 차이도 없다.

[그림 XI-25]의 중요한 특징은 앞선 그림들과 유사하게 청년세대 내 집단별 차이보다는 시기



에 따른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모든 집단에서 진보성향 응답자가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하락한다. 2021년에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이후 다시 진보성향 유권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 XI-25] 청년세대의 성별 진보성향,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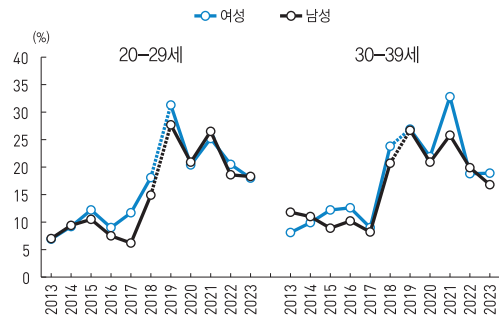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소 진보적' 혹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관적 이념 평가에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해도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치에서 이념 차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태도와 분배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정책 태도에서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다.

[그림 XI-26]에서 청년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로 네 집단 간 차이보다는 시기에 따른 변화가 더 크다. 북한이 친구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네 집단 모두 유사하게 2017년까지는 대략 10% 전후로 낮았는데, 2018년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2020년대에는 2021년에 가장 높았다가 최근 하락하는 추세이다.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북한에 좀 더 우호적이지만 2017, 2021년만 제외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5%p 이내로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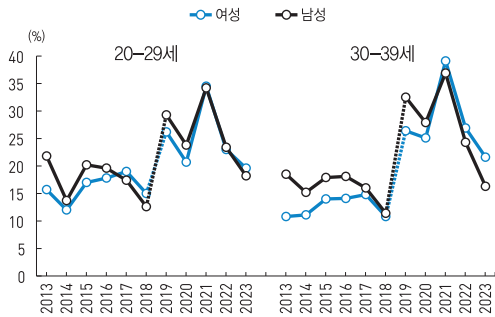
[그림 XI-26] 청년세대의 성별 북한에 대한 인식, 2013-2023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적도 친구도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다' 중 '북한이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9년 조사부터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0점)'부터 '북한은 우리의 적도 친구도 아니다(5점)',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바뀐에 따라, 11점 척도 중 6~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북한이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7]은 청년세대가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2018년까지 분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비율은 네 집단 모두 유사하게 20% 이하였다가, 2019년부터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대략 35% 정도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30대 여성의 39.1%가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는데 30대 남성도 36.9%, 20대 여성이 34.5%, 20대 남성이 34.2%로 유사하다.

[그림 XI-27] 청년세대의 성별 분배 선호 비율, 2013-2023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적도 친구도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다’ 중 북한이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9년 조사부터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0점)’부터 ‘북한은 우리의 적도 친구도 아니다(5점),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바뀐에 따라, 11점 척도 중 6~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북한이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5]의 주관적 이념 평가에 이어, [그림 XI-26]과 [그림 XI-27]처럼 한국사회에서 이념 형성에 중요한 정책 태도라고 간주되는 대북관과 분배 선호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시기에 따른 차이가 더 큼을 보여준다. 즉,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세대가 성별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는 달랐지만, 이러한 투표 선택의 차이가 이념이나 정책 선호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성별 사회문제 인식 차이

앞 절에서 다룬 이념과 정책 태도는 최근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나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청년세대 내 첨예한 의견 차이가 이념이나 정책 태도보다는 청년의 삶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0~2023년 누적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을 살펴본다.⁴⁾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자료는 총 10개의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묻는다. 사회문제의 종류는 ①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② 고용 및 노동 불안정, ③ 교육 불평등, ④ 삶의 질 저하, 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⑥ 사회통합 저해, ⑦ 안전위협, ⑧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⑨ 자연재해, ⑩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이다.

이 중에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는 사회문제는 ‘안전위협’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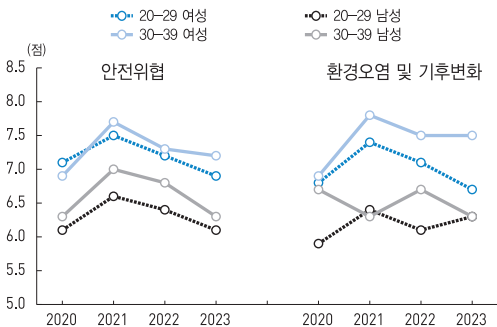
[그림 XI-28]의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의 안전위협에 대한 걱정은 전반적으로 큰 편이지만, 여성과 남성 간 인식의 차이가 큰 편이다. 2020년에 그 차이가 가장 큰데, 20대 여성의 평균값은 7.1점인데 반해, 20대 남성의 평균값은 6.1점으로 1.0점 차이가 난다. 강남역 살

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과 모바일 응답으로 조사된 온라인조사이다. 표본오차는 ±3.1%p이다. 더 구체적인 조사개요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건이나 지하철 화장실의 불법촬영 등 최근 몇 년간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사건들이 생긴 것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XI-28] 청년세대의 성별 안전위험 인식, 202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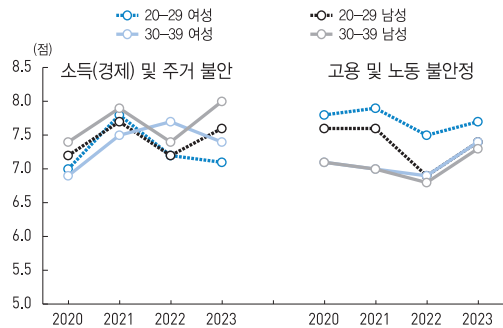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인 청년세대의 사례 수는 2020년 372명, 2021년 364명, 2022년 354명, 2023년 350명임.
 2) 통계치는 "안전위험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영향이 없다(0점)'에서 '매우 영향이 크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원자료, 각 연도.

마찬가지로 청년세대 전반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청년여성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2023년에는 3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30대 여성의 평균값이 7.5점인데 반해, 30대 남성의 평균값은 6.3점으로 1.2점 차이가 난다. 청년 여성들이 친환경소재, 먹거리안전, 동물권 등 새로운 사회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관찰들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반면, 소득 및 주거불안, 고용 및 노동불안정, 교육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서는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득 및 주거불안에 대한 응답을 보면, [그림 XI-29]와 같이 네 집단 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29] 청년세대의 성별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 인식, 2020-2023



주: 1) 분석대상인 청년세대의 사례 수는 2020년 372명, 2021년 364명, 2022년 354명, 2023년 350명임.
 2) 통계치는 30대 이하 응답자 중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 문제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영향이 없다(0점)'에서 '매우 영향이 크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각 연도

청년세대의 성별 삶에 대한 차이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자.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분석들을 보면, 현재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서의 과도한 경쟁,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과도한 경쟁과 불안 때문에 상대 성별을 경쟁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고 진단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22년에 시행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26일 간 전국 17개 시도 19세~34세 사이 청년 총 1만 4,9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삶의 중요 요소

우선, 청년들의 삶의 중요성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자. 1) 연애, 2) 결혼, 3) 자녀출산과 양육, 4) 높은 학력수준, 5) 내가 원하는 일자리, 6) 높은 소득과 많은 재산, 7)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8) 사회 기여, 그리고 9) 명예와 권력의 총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스스로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중요하다(4)까지 총 4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총 아홉 가지 항목 중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고 생각하는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평균 3.4, 표준편차 0.6)와 내가 원하는 일자리(평균 3.4, 표준편차 0.5)이다.

총 아홉 가지 항목 중 여성과 남성 간 응답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문항은 연애,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여였다. 연애,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전혀 중요하지 않다’ 포함)이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씩 더 높다.

다섯 개 항목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결혼인데, [그림 XI-30]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은 30.9%인 반면, 남성은 21.2%로, 중요도에 대한 생각 차이가 9.7%p로 가장 컸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 항목도 유사한데, 해당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은 35.8%이고 남성은 26.3%라서 자녀출산과 양육 중요도에 대한 생각 차이가 9.5%p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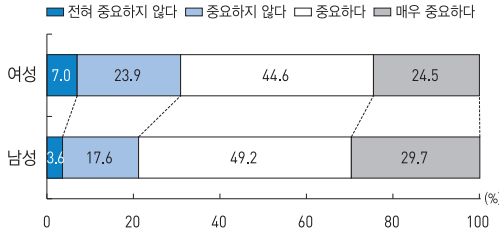
반대로, 좋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기여의 경우,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들이 해당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조금씩 더 높다. 예를 들어 사회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은 26.6%이고 남성은 29.6%로,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사회 기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삶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요약하면, 삶의 중요성에 있어 청년 여성과 남성들이 학력,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인 항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유사하다. 단,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 등 결혼관과 가족관에 있어 이견이 있고, 특히 청년 남성에 비해 청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결혼, 출산과 양육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청년세대 내 의견 차이에 의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결혼과 양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는 발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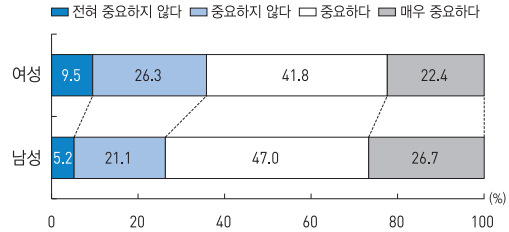


[그림 XI-30] 청년세대의 성별 삶의 중요성 인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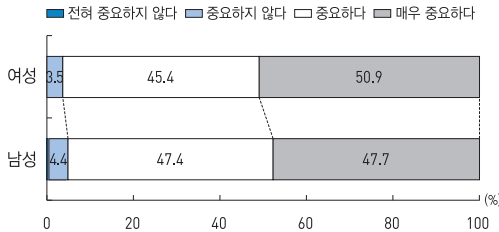
1)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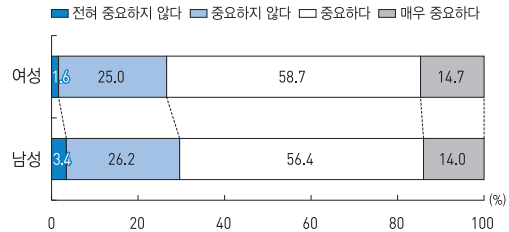
2) 자녀 출산과 양육



3)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4) 사회 기여



주: 1) 통계치는 만 19~34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미래 삶의 조건

그렇다면 청년들은 미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바라볼까?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 1) 부모의 경제력, 2) 부모의 교육수준, 3) 나의 교육수준, 4) 나의 노력, 5)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그리고 6)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총 여섯 가지 항목이 제시되었고,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이 있다.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4)까지 총 4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여섯 가지 항목 중 전체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나의 노력(평균 3.541, 표준편차 0.529)과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평균 3.345, 표준편차 0.57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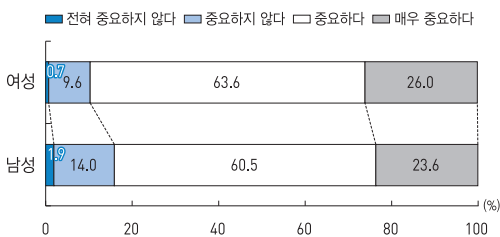
총 여섯 가지 항목 중 여성과 남성 간 응답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문항은 정부의 정책지원,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나의 교육수준이다. [그림 XI-31]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조건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여성들이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총 89.5%가, 남성은 총 84.1%가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5.4%p이다.

[그림 XI-32]는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조건으로 부모 경제력의 중요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여성들이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82.6%이고 남성의 비율은 78.2%로 4.4%p의 차이다.

총 여섯 가지 항목 중 남성들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나의 노력이지만,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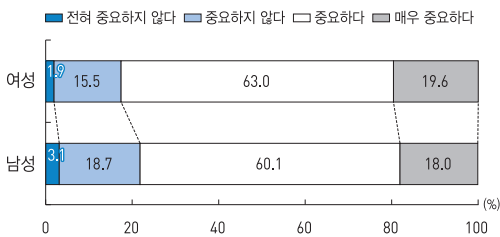
[그림 XI-31] 청년세대의 성별 정부정책지원의 중요성 인식, 2022



주: 1) 통계치는 만 19-34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한 응답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그림 XI-32] 청년세대의 성별 부모 경제력의 중요성 인식, 2022



주: 1) 통계치는 만 19-34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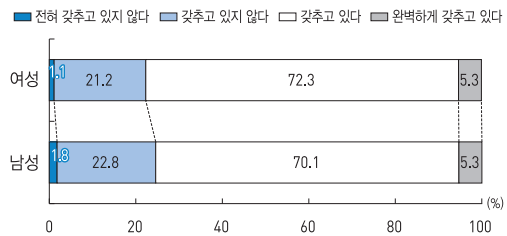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마지막으로 앞서 물어본 여섯 가지의 바라는 미래 실현의 조건을 본인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을 비교해보자. 총 여섯 가지

항목 중 응답자들이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항목은 나의 노력(평균 2.854, 표준편차 0.566)과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평균 2.826, 표준편차 0.583)이다. 반대로, 가장 비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부모의 경제력(평균 2.601, 표준편차 0.634)이다.

여섯 가지 항목 중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나의 교육수준이다. [그림 XI-33]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본인 교육수준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평가한 응답이 여성은 77.6%, 남성은 75.4%로 그 차이가 2.2%p로 별로 크지 않다.

[그림 XI-33] 청년세대의 성별 본인 교육수준 성취수준 인식, 2022



주: 1) 통계치는 만 19-34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나의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조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중 스스로의 노력이 다른 조건에 비해 잘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조건의 중요성



중 일부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정부의 정책지원,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나의 교육수준을 청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 반면, 미래를 위한 조건들이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맺음말

본 연구는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견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젠더갈등이 심각한 일부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각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갈등, 성별에 따른 차별, 정치이념, 북한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 선호 등의 영역에서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의 네 집단의 의견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기간에 따라 찬반 의견이 유사하게 변동했다.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일부에 대해서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안전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하여 청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2022년에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현재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와 미래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비교했다.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의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 청년 남성들이 청년 여성들보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청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사회 기여였다.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이 발생할 분야가 결혼과 양육의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발견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이견도 존재한다. 청년세대 모두가 나의 노력이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지원과 부모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해당 조건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문제나 현재 삶과 미래 삶의 중요도에 있어서 청년세대 내 인식 격차가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대체로 의견들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처럼 장기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 간 차이보다 시기별 차이가 뚜렷하다. 즉, 청년세대 내에서 인식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것이 소위 “젠더갈등”이나 “젠더정체성 정치”라고 불릴만큼 강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본 보고서가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의 모든 영역이나 주제를 다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서 젠더갈등이 심각할 수 있고, 대체로 대면조사를 분석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desirability bias)으로 인해 젠더갈등의 강도가 전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2021년 한국리서치의 온라인 설문조사 중 일부 내용은 시사점이 있다. 전국 2,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에서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복수응답으로 물었는데, 언론이 78.4%, 정치인이 77.6%로 가장 높았고, 여초 커뮤니티가 70.9%, 남초 커뮤니티가 68.0%, 그리고 SNS가

63.2%이었다(국승민 외 2022, 126). 즉, 이 조사의 응답자들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일부 온라인상에서 부각되는 갈등을 과도하게 보도하고 동원한 결과, 젠더갈등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규모의 국가승인 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함의를 가진다. 청년세대 내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인식이 성별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젠더갈등이 소수의 의견을 과장해서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참고문헌

- 국승민·김다은·김은지·정한울. 2022. 「20대 여자」 서울: 시사IN저널북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서울: 시사인북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